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조*준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에히메 마츠야마
파견대학	에히메대학교	파견기간	2017.04~2018.02
귀국여부	2018.02.21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에히메 대학교는 마츠야마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 순천향대학교와 달리 산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캠퍼스의 크기는 많이 넓진 않지만 무척 깨끗하고 건물들의 상태와 학교시설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교육학부는 1학기과 2학기 모두 같은 건물들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6-1학기 수업	<p>요시마츠 교수님의 지적장애아 교육법 : 2학년 학생들과 조를 만들어서 요시마츠 교수님이 건네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일본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면 수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출석률과 레포트 그리고 마지막의 시험으로 성적이 결정 됩니다.</p> <p>타치이리 교수님의 청각장애아 지도법 : 교수님이 한국어 프린트를 따로 준비 해 주십니다. 덕분에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공부하기 쉽고 수업내용도 정말 유익합니다. 이처럼 타치이리 교수님의 수업은 전부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매 수업마다 쪽지시험이 있고 이는 성적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p> <p>타치이리 교수님의 청각장애아 검사법 : 검사법 시간은 한국에서는 다룰 기회가 없는 여러 가지 청각검사도구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배운 청각검사도구 사용법으로 교수님의 보청기 세미나에서 아동의 청력을 측정하는 일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좀처럼 없는 기회이기에 적극 추천합니다.</p>

	<p>특수학교 견학 세미나 : 이 수업을 듣기 위해 일본을 유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여러분야의 특수학교를 견학하는 수업 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의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고 배울 점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방식이나 여러 가지 교구들을 잘 봐 두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특수교사 생활을 할 때 꼭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은 매주 쓰는 레포트로 결정 됩니다.</p>
2016-2학기 수업	<p>요시마츠 교수님의 특수 교육 개론 : 특수 교육 개론의 수업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조를 이루어서 수업합니다. 수업의 내용은 유익하지만 조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가 부족하다면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p> <p>타치이리 교수님의 교육청능학 : 1학기의 청각장애아 검사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업내용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검사도구를 사용해보거나 자신의 이어몰드를 직접 만들어 보는 등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p> <p>야마시타 교수님의 중복 LD 심리 : 수업내용이 어렵고 지루합니다. 교수님의 말씀도 상당히 나긋나긋하고 발음도 어렵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카노 교수님의 수업들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업때 다루는 내용은 유익하기 때문에 열심히 들을 자신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p> <p>카토 교수님의 지체부자유아 교육 과정 및 교수법 : 수업의 방식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학생역과 선생님역을 정해 직접 수업안을 짜서 시연하는 등 꽤 유익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와서까지 수업시연을 하고 싶지 않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저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이 모이는 동그라미 라는 씨클에서 활동했습니다. 2학기 부터는 아르바이트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ICO라는 씨클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시키고 경험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별로 재미는 없으니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이다이뮤즈 건물에서 유학생 프로그램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여지거나 이메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면 행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참여하는걸 추천합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봄 가을 겨울은 한국과 비교해 훨씬 따듯하지만 여름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또한 여름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큰 태풍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기비가 무섭다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기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000엔 정도 더 나옴) 정 불안하다면 기숙사 안의 집회실을 빌려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겨울은 한국에비해서 따듯한거지 춥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숙사의 방은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전기매트를 사용해 주세요.</p>
안전	<p>마츠야마는 일본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치안이 매우 좋은 편이고 자동차들도 난폭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바로 옆에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면 바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저는 미유키 학생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방은 좁은 편이지만 집세가 싸고 욕조가 있는 화장실과 요리를 할 수 있는 작은 주방과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름은 기숙사지만 거의 자취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금시간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1인 실이기 때문에 좁아도 문제는 없었고 경비아저씨가 계시긴 하지만 엄하시진 않기 때문에 기숙사 규칙을 조금 어기더라도 모른 척 해 줍니다. (분리수거나 친구를 초대하는 등) 1층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전부 해결 할 수있고 값도 싸고 맛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했습니다. 1층에 있는 방에서 지내게 될 경우 도마뱀이나 바퀴벌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p> <p>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p> <p>식사는 대체적으로 LAMU에서 쇼핑을 해서 요리해 먹거나 여러 음식점을 이용했습니다. 외부식당의 경우 밤늦게까지 하는 집도 많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자주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식당은 학교 옆에 위치해 있는 사쿠리 쇼쿠도, 오카이도의 잇부도(일풍점), 카츠야, 나마스떼 입니다.</p>
교통	<p>마츠야마에는 도로 중앙에 전차가 다닙니다. 한번 타는데 160엔이고 자주 다닙니다. 하지만 마츠야마는 자전거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츠야마 이외에 다른 곳을 가보고 싶다면 마츠야마 지역에서 JR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20만원(시기에 따라 다름)	
Fees	전기비 :약 50만원 수도세 :약 40만원	
보험료	13만원	
숙소	한달 18만원 C동D동의 경우 22만원 총 180만원	
식비	약400만원	
교통비	-	

책값	전권 빌림	
기타1		
기타2		
합계	약 703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돼지코는 꼭 준비하고 옷을 수납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옷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본어 수업책이 꽤 비싸기 때문에 빌리는 걸 추천하지만 작년 선배들은 미리 한국에서 사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기숙사 보증금과 결핵진단서를 꼭 준비하세요. 혹시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국제 택배를 통해 3~4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VISA나 마스터의 체크카드가 없다면 꼭 만들어 두세요.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 진다면 그 체크카드를 통해서 바로 엔화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일본에 도착한 후 약 한달간은 여행기분으로 항상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익숙해지면서 일본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유학하면서 느낀거지만 이곳에서 일본어능력이 부족하다면 1년을 낭비하게 될 것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교수님인 타치이리 교수님이 한국어 프린트를 준비해주시긴 하지만 기본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하시고 다른 교수님들한테는 한국어 프린트 같은건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일본어의 실력이 늘수록 수업들도 점점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에히메 대학교에는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지만 한국인들이랑만 지낸다면 일본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마츠야마에 도착하기 전에 튜터가 정해지는데 우선은 튜터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튜터와 친해진다면 여러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고 학교 수업의 팁이나 교수님들의 시험, 과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다면 귀찮아하지 않고 전부 참석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저는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 나갔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실력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방법은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한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담당교수님인 타치이리 교수님은 유학생을 엄청나게 챙기십니다. 교수님의 집에 초대하거나, 식사를 하러가거나, 여행을 하러가거나 등등 교수님에게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타치이리 교수님은 엄청난 애주가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매번 술을 마시게 될 것 입니다. 저한테는 뭔가 항상 짓궂었지만 실제로는 학생을 엄청나게 아끼시는 따듯하신 분입니다.

저는 유학하면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집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도 넉넉지 않았고 해외에서 일해본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어 강사, 통역사, 도고 온천 호텔 스태프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족한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었고 일을 통해 일본사회는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졸업 후의 장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교수님과 세미나의 학생들과 스키장에 갔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에히메 대학교 특수교육과 2학년들에게 망년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할로윈을 맞아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을 한국 음식점에 데려가서 한국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생일을 맞아 교수님의 집에서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써클의 사람들과 봄에 꽃놀이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